

크로아티아, 연정 붕괴로 정치적 위험 높아져

□ 연정 내 갈등으로 총리 전격 사임

- 지난 7월 5일 Racan 총리가 갑자기 사임함으로써 지난 30개월간 유지되어 왔던 연정이 붕괴되었다. 이번 Racan 총리 사임은 연정 내 제2당인 크로아티아 사회자유당(HSLS)이 슬로베니아에 인접한 Krsko 핵발전소 해체 법안에 반대한 것에 대한 Racan의 강력한 반발의 결과이다.
- 군소 정당들을 포함하여 6개 정당으로 구성된 크로아티아의 현 연정은 정당간 알력으로 인한 불안이 있었으며, 사회민주당(SDP) 총재인 Racan 총리와 제2당인 사회자유당의 Buisa 총재간 갈등은 특히 심각한 양상으로 지속되어 왔다. 결국 지난 2000년 초 민주화와 對 서방 관계 정상화라는 핵심과제를 안고 출범했던 Racan 정부는 연정 출범 초기부터 우려되었던 연정 내 갈등으로 인해 30개월만에 붕괴된 것이다.
-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는 30일내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던지 아니면 두 달 내 조기총선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, 어느 경우든지 크로아티아 정국의 안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첫 번째 시나리오: Racan, 새로운 정부 구성

- 첫 번째 시나리오는 Racan 총리가 사회자유당을 배제한 채 다양한 군소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하여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. 특히, Racan이

Budisa에 반발하는 일부 사회자유당 의원들의 영입에 성공할 경우 다수 의석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.

- 실지로 지난 Krsko 핵발전소 해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회자유당 의원은 총 23명 중 9명에 불과하며, 사회자유당 자체도 분열될 위기를 맞고 있다. 따라서 Racan이 사회자유당 의원 영입에 성공한다면 다른 중도파 정당들도 연정에 참여하고, Mesic 대통령도 Racan의 정부 재구성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.
- 연정 붕괴를 야기한 Budisa에게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정파들은 조기총선을 원치 않고 있어, Racan은 사회자유당을 배제한 채 무난히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그러나 Racan이 다수 의석의 연정을 구성하더라도 다양한 성향의 정파가 연정에 참여함으로써, 새 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.

□ 두 번째 시나리오: 조기총선 실시

- Racan이 다수 의석의 연정 구성에 실패할 경우, 크로아티아는 조기총선에 돌입하게 된다. 그러나 이 경우 안정적 정부 구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 커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.
- 특히, 독재자 Tudjman의 죽음과 함께 지난 2000년 초 중도파에게 정권을 내주었던 극우파 크로아티아 민주연맹(HDZ)의 부각이 우려된다. 25%에 이르는 높은 실업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생활 수준 등으로 Racan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, 사회민주당은 지지율이 16%에 불과한 반면 민주연맹의 지지율은 20%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.
- 국내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된 민주연맹이 다시

집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. 그러나 그 동안 親서방, 親 시장 정책을 추구해 왔던 Rakan 정부에 강하게 반발해 왔던 민주연맹이 조기총선을 통해 영향력을 회복한다면 이는 외국인투자 등 대외경제 관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.

책임연구원 고재호(☎3779-6663)

E-mail : kohjh@koreaexim.go.kr